

북유럽 국가의 평생학습체제: 오래된 미래*

한승희(韓崇熙)** · 김경애(金暲熙)*** · 이정은(李廷恩)****

논문 요약

북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실제로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교육 정책을 구축해온 국가들로, 노동자 학습체제로서의 학습사회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북유럽에서는 평생학습이 노동자의 권리로 인식되어 추구되어왔으며, 민중의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학습문화 속에서 사회정치적 특성이 발생되어왔다. 이들 국가에서는 초·중등 단계에서 생애기초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력을 강조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 비대학 고등교육체제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초기학교교육과 성인계속교육을 구조적으로 연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기간학제 내에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고용-복지의 삼각체제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자치에 기반한 비형식 민중교육의 전통 가운데 공교육 및 성인학습체제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총체적인 평생학습체제를 위해 총괄적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책적으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개혁을 주도해 가고 있다.

북유럽 모형에서 평생학습체제는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노동시장 및 시민주의적 복지국가체제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학교 교육체제, 노동시장 교육체제, 시민사회 교육체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포괄하고 있는 상위체제라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 평생교육, 평생학습정책, 평생학습체제, 북유럽

* 본 논의는 『한승희 외(2005). 북유럽 평생학습정책 추진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평생학습추진 전략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의 일부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

** 서울대 교육학과,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교수임.

***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대 교육학과,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임.

I. 서론

북유럽 국가들¹⁾에서 교육정책은 일찍부터 평생학습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어왔다. 오히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들은 역사 이래 아동 및 청소년기만을 지칭하는 교육제도를 구축한 적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루터교로 개종하면서 모든 성인에 대한 문해능력을 교회가 관리하기 시작하여 성인들은 문자를 해독하는 학습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성인 비문해율이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게 된다. 20세기 초까지 농업사회였고, 땅이 넓어 농노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국가인증 학력에 대한 의존도는 낮았지만 반면에 민중에 의한 비제도권 교육열은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특성도 보이게 된다. 19세기 말 국가가 4년제 초등교육을 의무화했지만 바로 이때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포크하이스쿨이 이 지역에서 탄생했던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한 경향성은 1960년대 들어 의무교육을 9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성인들에 대한 의무후기중등교육체제가 거의 동시에 출범하게 된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복지국가적 형태로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장훈련정책 및 시민사회의 기초가 되고 있는 스터디 서클과 포크하이스쿨 등은 공교육체제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인고등학교 등과 함께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OECD 국가 가운데 성인학습 참여율의 1위에서 5위까지를 고스란히 노르딕 국가들이 차지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요컨대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교육이란 곧 평생학습을 의미하기에, 학령기 아동교육과 함께 성인계속교육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균형을 맞추어 발전해왔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이들 국가의 평생학습적 특성은 최근 지식기반사회를 배경으로 한 평생학습론, 특히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및 학습시장론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이며, 그 존재양식에 있어서도 영국식의 평생학습 모형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북유럽과 서유럽의 대비를 통해 평생학습 모형의 양극단을 목격하고 있는 셈인데, 결론적으로 서유럽의 모형이 신자유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면 북유럽 모형은 시민주의적 모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있다. 하나는 자본가 즉 고용주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모형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 즉 피고용자의 필요에

1) 북유럽 국가란 대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5개국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바이킹의 문화를 공유함과 동시에 중세 이후 서로 상당기간동안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 얽혀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가운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근대국가 형성과 산업자본주의 구축 과정에서 상당히 유사한 특성들을 공유하게 된다. 반면 북해 석유에 의존하는 노르웨이와 다소 고립되어 존재하는 아이슬란드 등은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이들과 다른 차이점을 가진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3국을 지칭한다.

서 출발하는 모형이다(Field, 2005: 2; Alheit, et al. 2004: 10). 서유럽 및 북미의 모형이 주로 전자에 해당한다면 북유럽 평생학습사회의 모형은 주로 후자에 더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이들 국가들이 노동계급에 의해 주도되고 구축된 체제에서 노동자 학습의 필요에 터하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일종의 시민주의에 터한 코포라티즘(corporatism)에 의해 시민역량이 강화되고 그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높은 세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사회체제라는 특이성에서 출발하여 구축된 체제인 것이다. 지난 23년 동안 참여정부가 북유럽 평생학습과 노동훈련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들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체제의 재생산 양식과 사회적 학습관리체제로서의 평생학습체제의 상호 시너지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적 경제성장의 호황 속에서 구축되어 왔던 시민주의와 복지국가체제를 배경으로, 평생학습체제는 이들이 추구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체제의 구축과 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유럽경제의 위기와 함께 나타난 지구적 자본의 총체적 위기는 이들 국가들의 시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였으며, 그 틈새를 통하여 나타난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1960년대 이래 구축되어 온 평생학습체제에 상당한 정도의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의 장을 목격하게 된다. 2차 대전 이후 노동자 학습체제로서의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평생학습체제는 현재까지 지구상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견고한 형태의 교육체제²⁾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북유럽 산업화 가운데 나타난 평생학습체제의 모습은 우리가 목격한 실제화 된 학습사회의 한 가지 전범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북유럽의 평생학습체제의 구조와 배경을 탐색하는 가운데 '평생학습체제'가 학교 밖 교육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국가의 총체적 학습관리 시스템 안에 불박혀 있는 양상을 드러내려는데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의 비교 속에서 한 가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정책이 마치 학교교육과 무관한 어떤 것이며 또한 인적자원개발정책과도 구분되는 어떤 '변방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의 직제 역시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정책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들 국가에서의 평생학습체제는 (1) 학교 교육체제, (2) 노동시장 교육체제, 그리고 (3) 시민사회 교육체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하나의 전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2) 교육체제(educational system)란 학습자와 교수자로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행하는 행위와 과제, 그리고 그 결과 및 그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재정적 체계들의 살아있는 상호작용을 통칭한다.(한승희, 2006: 86)

그 구조화에 이르기까지 이들 국가의 평생학습체제는 상당 부분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그 안에 노동자의 삶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의는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북유럽의 교육체제에서 어떻게 고려되어 구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의 학교교육, 노동시장교육, 시민사회교육 등을 들여다보았다.

이 논의를 위해서 문헌분석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각국의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사례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 중 한 명은 2005년 8월 9일부터 9월 5일까지 1개월의 기간을 스톡홀름 대학교 국제교육연구소 방문교수 자격으로 현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가운데 2주일은 공동연구자 및 연구조원들과 함께 덴마크 및 핀란드의 주요 기관을 방문하였고 약 35명의 각국 교육 전문가들을 인터뷰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지문건들을 획득하였으며, 현지어로 작성된 문건의 경우 번역을 하였다. 이렇게 현지에서 확보된 인터뷰 자료, 각종 현황 자료 및 학술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연구자들 간 토론을 통해서 그 특징을 도출해내었다.

II. 북유럽의 특수성: 노르딕 평생학습사회가 가능한 배경

1. 북유럽 모형: 개략

일반적으로 북유럽 혹은 노르딕(Nordic)은 스칸디나비아 제국(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과 덴마크·아이슬란드를 합한 5개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이들 국가들은 많은 학습 기회와 학습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북유럽 나름의 독특한 평생학습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유럽 국가들에서 구축된 현재의 평생학습사회는 바로 북유럽 국가들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위에서만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의 북쪽에 인접해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비슷한 정치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한다³⁾. 하지만 다른 편에서 바라보면 이들 국가들은 인종과 언어도 다르고⁴⁾, 역사적 과

3) 이들 국가들은 유럽의 북쪽에 인접해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비슷한 문화적 전통을 공유한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1523년까지 덴마크 왕의 지배아래 있던 단일국가였다.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의 영향권 하에 있었고, 스웨덴과 덴마크 등은 건국 처음부터 서로 관련 있는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이후 스웨덴이 북유럽의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노르웨이와 핀란드까지 통치하게 되다가, 다시 나폴레옹 전쟁 후 1812년 핀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다. 노르웨이는 1905년 스웨덴에서 독립한다.

4) 인종과 언어를 살펴보면 스웨덴인과 덴마크인은 북게르만계이고 핀란드인들은 스칸디나비아족과 발트 인

정에서 각기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각국 고유의 독자적인 특성들을 형성해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⁵⁾.

이러한 공통성과 독자성은 평생학습 및 고용 체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갖는 독자성을 고려할 때에는 각기 보유한 차별적인 측면에 주목하게 된다. 각국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관련 전략과 모형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각국의 역사·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국가 간에는 공유하고 있는 모종의 공통가치(common values) 및 공통표준(common standards)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Belanger & Tuijnman(eds.), 1997; Tuijnman & Schuller(eds.),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북유럽 모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보는 논의들은 이 모형의 특징을 주로 앵글로색슨 모형과의 대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북유럽 모형은 1)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에 치중하는 것과 대비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극대화하는 모형이며(Field, 2005), 2) 신자유주의 모형(neo-liberal version)과 대비되는 평등주의적 복지국가 모형(egalitarian welfare state version)(Alheit et al., 2004: 10)이다⁶⁾.

이처럼 북유럽을 하나의 모형으로 묶을 수 있는 느슨한 연결고리는 1990년대 이전, 이들 국가들이 구축해 온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성향 및 그것을 지지하는 독특한 경제체제, 그리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문화적 경향성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가치와 표준을 공유하는 맥락에서 북유럽 국가의 모형은 유럽의 다른 지역 모형들 혹은 OECD 등의 거대국제기구들이 선도해온 모형과 일면 차별성을 가지면서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종에 속한다. 스웨덴어와 덴마크어는 인도유럽어족의 게르만어파 중 북게르만어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스칸디나비아어에 속한다. 덴마크어는 약 1000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제어에서 갈라져 나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스웨덴어와 아이슬란드어에 영향을 주었고, 한 때 노르웨이에서 공식 문어 및 행정어로 사용되었다. 핀란드어는 우랄어족의 핀우고르어군에 속하는 발트핀어파 언어로, 에스토니아어·리보니아어·보트어·카렐리아어·벨스어·잉그리아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핀란드어에는 인도유럽어, 특히 발트어·독일어·러시아어에서 차용한 낱말이 많이 들어 있다.

- 5) 스웨덴과 덴마크는 폭넓은 공유와 교류를 하고, 핀란드는 덴마크와 접촉한 스웨덴 문화를 다시 만나 자신의 문화를 만들었다가 다시 러시아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유럽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핀란드만의 문화를 형성해가게 된다.
- 6)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극대화하는 모형은 직접적인 인간자본 혹은 경제적 자본의 축적보다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즉, 사회민주주의 정신을 재생산하기 위한 연대와 신뢰적 기반을 축적해온 측면이 강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평등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은 일종의 코포라티즘(corporatism)에 기반을 두어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일종의 조합주의적 공동의사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공공의 임무 및 시장가치가 서로 조화되도록 유도한다고 본다.

2. 평생학습 용어 이전의 평생학습 체제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평생학습정책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국가들은 그 공교육체제 내부에 이미 자체적인 평생학습체제를 잉태하고 있었다. 북유럽 3국은 역사적으로 교육의 대상을 모든 연령과 계층의 국민이라고 보아왔다. 비록 이것이 '평생교육체제' 혹은 '평생학습체제'라는 개념 하에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Sohlman, 1998), 이들 국가들이 추구해온 교육체제는 하나의 평생학습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이 평생학습이라는 용어 없이 추구해온 수많은 교육정책들은 현재 다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울로프 팔메 수상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인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은 OECD 평생교육정책의 핵심 용어 중 하나가 되었고, 스웨덴에서 생겨난 'life-wide 학습'이라는 개념이 EU전략에 핵심적으로 포함되었으며, 평생학습결과인증에 관련된 '인증(validation)'이라는 개념 역시 스웨덴식 사고가 담긴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유럽연합이 유럽평생학습각서(Memorandum of Lifelong learning)를 발표했을 때 그 안에는 상당 부분의 북유럽식 평생교육 전략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노르딕 국가 장관 회의가 산출해낸 "Golden Riches in the Grass"의 아이디어는 "Making a European Area of Lifelong Learning a Reality(2001)"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스웨덴의 역할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북유럽 국민들은 성인학습훈련체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성인학습참여율로만 봐도 북유럽의 5개국 이 모두 IALS 조사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는 성인인구의 약 50%가 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MOE, 2005), 핀란드는 성인인구(25세-64세)의 58.2%가 성인교육에 참여(1994-199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01a).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은 성취도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2005년 국제성인문해수준 조사 연구(IALS,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에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각각 3위, 5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해수준의 분포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노동자의 평생학습권

북유럽의 교육관련 정책문건에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전개해온 독특한 정치적 전통 속에서 노동자의 교육 문제가 노동자 권리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추구되어왔기 때문이다. 즉 북유럽에서 노동자의 학습은 사용자나 국가

가 아닌, 노동자 자신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왔다. 성인계속학습은 노동조합이 주도한 노동권의 하나였기에, 각국의 노동조합은 노동 조건 중 하나로 계속학습의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학습휴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왔다. 노동자들은 사회의 평등, 부의 평등 분배를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평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교육기회의 평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전개된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이미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작업장노조(분회) 간부들 및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권을 각각 [노조 현장위원의 지위에 관한 법](1974년)과 [노동자의 교육휴가에 관한 법](1974년) 등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닦아 놓았다. 스웨덴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노동교육과 관련해서는 생산직노총(LO)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교육협회(ABF)와 사무직노총(TCO)과 연계된 사무직교육협회(TBV)의 역할이 매우 크다. 노동조합에서는 자체적인 노동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위의 교육협회들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 성인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과 참여가 고용주의 의무이자 종업원의 권리로 인식되어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에 매년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반영된다. 이 단체협약에서는 회사차원에서 직업훈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과 도구에 대한 기본 틀 및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며, 특정 분야의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개별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 수준에서만 아니라 노동조합 총회 차원에서의 성인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과 리더십도 덴마크 성인 직업훈련의 성장과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또한 덴마크노조총연맹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차원에서의 역량개발과 평생학습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도 1899년에 이미 노동자들이 세력화되면서 노동자 기관(workers' institutes)이라는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생겨난다. 이 기구들은 현재까지도 노동자 기관 혹은 성인교육센터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 기관에서는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과 직업기술 훈련, 기타 교양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비형식 성인교육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스테디스태틀 학습문화의 정치적 전이

북유럽 근대 교육체제 및 현대적인 평생학습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씨앗은 민중교육이라는 개념과 실천에서부터 파생된다. 북유럽에서 민중교육은 다양한 민중운동 가운데 시작되어

전파되었으며, 이를 통해 비형식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고 포크하이스쿨이나 스터디서클도 형성된다. 이후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70년 이상 지속되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평등과 연대, 그리고 참여의 실천이 사회적으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바로 평등한 보통교육과 적극적인 성인학습 공동체들을 구축하는 데에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Sohlman, 1998; Larsson, 2001)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북유럽 특유의 사회조직과 국가 간의 관계 모형이다⁷⁾. 이 관계의 핵심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정책협의모형에서 출발한다. 북유럽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경우 그 내용을 관련 시민단체에게 알려서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관행이 시작되었는데, 이 때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스터디 서클이다⁸⁾.

북유럽의 스터디서클은 전통적인 학교교육과는 차별되는, 자발적 참여와 리더십을 통해 운영되는 수평적 자율조직이다. 스터디서클이 운영되는 핵심 키워드는 ‘평등’, ‘참여’, ‘자율’ 이라고 볼 수 있다⁹⁾. 이러한 기본 원리의 기반 위에서 스터디서클 학습자들은 개인의 삶의 문제, 의문 및 요구를 스터디서클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연결시키고,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획하고 실천하며 탐구하는 가운데 삶과 밀착된 학습을 해나가고 있다.

스터디서클은 자율적인 학습모임이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해왔다.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운동의 중심지였으며, 민주적 의사소통체계 재생산의 중심 기제였고, 각종 정치적인 이슈나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장이었으며, 각 정당·조직·단체들이 성장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 활성화 기제였다.

특히 스웨덴의 교육학자와 성인교육실천가들은 스터디 서클을 중심으로 노동계급과 민중계층이 의식의 수준을 고취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역량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한다¹⁰⁾. 그리고 이들의 역량에 기반하여 시민당이 주도하는 정치구도가 창출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스웨덴에서는 거의 모든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합의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을 대전제로 하는 정치문화를 가꾸어오게 된다.

7)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북유럽의 사회조직과 국가 간의 관계는 주목받아왔다.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의 사회조직들과 국가 간의 관계는 스웨덴 모델(The Swedish Model)이라며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8) 출처: 현지 린쇠핑 대학(Linköping University) 원로교수 인터뷰

9) 출처: 현지 스터디 서클 브로슈어

10) 출처: 스웨덴 현지에서의 교육학자들 및 성인교육실천가들과의 인터뷰

III. 교육단계별로 구축된 평생학습 토대

1. 초·중등 교육 단계: 생애기초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북유럽 국가들에서 보는 평생학습의 기초는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생애기초능력(life skill or key competency)을 일컫는다. 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교육을 마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오히려 성인이후의 본격적인 학습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북유럽의 초등 및 전기중등교육에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평생학습의 엔진이 될 만한 능력들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¹¹⁾. 첫째,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한다. 둘째, 아동 스스로 자신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자기개발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독려된다. 셋째,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법을 배운다. 넷째, 자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된다. 다섯째, 독립적인 사고와 생활방식을 갖도록 훈련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을 통해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교육 현장에서도 어떠한 방식의 불평등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덴마크의 학령기 학교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로 아동중심, 교사와 학생 간의 평등한 관계,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성개발, 민주주의 경험과 공유, 그리고 비판적 의식 등이다¹²⁾. 핀란드에서도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평등성을 도모하고, 아동이 향후 생애 전반에서 스스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¹³⁾. 스웨덴에서도 초·중등교육에서는 협동학습과 문제해결,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력 등이 가치 있는 교육목표로 설정되어 있다¹⁴⁾. 아이들은 부모 및 교사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되는 교육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질문에 중점을 둔 수업방식을 채택한다. 주된 학습방법으로는 집단 토의, 프로젝트 수행, 문제해결 등을 활용한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개별적인 학습보다는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동하는 훈련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 속에서 실제로 맺게 되는 관계를 미리 학습한다.

한편, 3국에서 걸로 드러나는 후기 중등교육과정의 설계 형태는 각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시민들의 생애발달에서 실질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11) 출처: 각국의 교육부 홈페이지(덴마크 교육부 <http://www.uvm.dk>, 스웨덴 교육부 <http://www.eng.hsv.se>, 핀란드 교육부 <http://www.minedu.fi>)

12) 출처: 덴마크 교육부 <http://www.uvm.dk>

13) 출처: The Basic Education Act, 1999

14) 출처: 스웨덴 교육부 <http://www.eng.hsv.se>

로 위치 지워져 있다.

스웨덴의 후기중등교육은 한 학교 내에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16개 국가표준 교육계열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교육계열을 학교에 개설할 것 인지는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학교별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직업교육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핵심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나머지는 선택해서 수강한다.

덴마크의 경우, 후기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김나지움 하나이다. 김나지움은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다. 그 외 직업 관련성이 높은 인문교육, 청소년 직업교육은 모두 김나지움이 아닌, 직업전문대학(vocational college) 등에서 이루어진다. 덴마크의 직업전문대학은 보통 단기고등교육과정인데, 이들 학교에서는 고등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고시 및 상업고시 등의 준비 과정을 개설하고, 실제 직업훈련과정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직업교육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후기중등교육 단계에서 명확하게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를 구분해놓고 있다. 핀란드 학생들은 종합학교 후기 3년(우리나라 중학교 과정) 동안 고등교육을 준비하는 경로와 직업교육을 받는 경로 중 선택하게 된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산업체와 협력하여 인턴제 등 현장실습위주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과 연계하여 이 단계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을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원할 경우 대학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선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다.

중등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기성세대를 위한 성인교육이 이들 국가에서는 공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는 성인교육을 기본학제와 같은 수준에 의거하여 구성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성인교육센터(VUC)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성인을 위한 공립학교 시스템은 지자체 성인교육인 콤복스(Komvux), 학습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실 등이 있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초·중등 수준의 교육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학령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콤복스(Komvux)는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대학교나 대학에서는 단기 교육과정이나 단일 과목 등을 성인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개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유럽에서 성인교육은 각종 타 교육정책 및 사회정책을 기획할 때 중요하게 함께 고려되는 분야이다. 핀란드의 경우를 보면, 이미 1970년대에 성인교육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인정받아, 국가적인 성인교육 계획으로 통합되기 시작하였으며¹⁵⁾,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포섭된다(Rinne & Vanttaja, 1999: 23. 재인용 OECD, 2001a: 6). 이러한 결과로, 성인교육

기관은 지역의 문화활동 및 타 교육기관과 협력하는 능동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지역 도서관, 지역행정기관들, 다양한 지역의 협회 혹은 각종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활동하는 사회의 구심점으로 역할하게 된다.

2. 고등교육: ‘유니버시티’ 중심에서부터의 탈피

이들 국가들은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고등교육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전문직 참여활동을 대학 체제로 편입하여 공교육의 일환으로 만드는 등 새로운 형태의 비대학 고등교육체제를 마련해왔다. 그리고 이것을 주로 지자체 및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지역밀착형 모형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의 폴리테크닉(Polytechnics)은 대학 비진학자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90년대의 교육개혁 과정에서 탄생한 폴리테크닉은 종래의 중등 후 직업교육(post-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의 수준을 높여 기존의 대학에 상응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폴리테크닉은 처음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직업세계의 변화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Välilmaa & Neuvonen-Rauhala, 2004). 따라서 폴리테크닉의 행정부에는 교직원, 학생은 물론 지역 내 산업계 인사도 참여한다.¹⁶⁾

스웨덴의 고급직업교육인 KY(Kvalificerad yrkesutbildning) 프로그램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고급 직업교육 분야에 새로운 교육형식을 만들어낸 KY 프로그램은 종합 대학교, 단과대학, 자치단체, 사기업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인 기업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해 직업 세계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더불어 사회적

15) 핀란드 교육체제 내에서 성인교육은 별개의 교육부문이 아니라, 교육체제 내에 통합되어 있는 한 부분이다. 또한 별도의 성인교육기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에서 성인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16) 폴리테크닉은 소규모의 다양한 직업훈련기관들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고등교육체제로 개혁하여 직업훈련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한 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핀란드 정부는 1991년 AMK 프로젝트에 따라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상업·보건 분야의 서로 다른 2~8개의 직업교육기관들의 연합협약을 이루고 이에 의해 컨소시엄 형태로 폴리테크닉을 구성하였다. 기존 85개의 직업훈련학교들을 통합·조정하여 처음에 22개의 폴리테크닉이 설립되는데, 기존의 85개 직업교육 조직들은 핀란드 전체 직업교육 기관의 15%에 달하는 숫자이다. 폴리테크닉 개혁을 단행할 때의 핀란드의 직업훈련체제의 문제점과 개혁 이후의 소득은 눈여겨볼만 하다. 개혁 이전, 독립된 영역으로 나뉜 직업교육은 산발적인 학교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현장과의 협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직업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신기술에 대한 현장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밀착형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의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폴리테크닉을 구상한 것이었다.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학교와 기관을 폴리테크닉으로 통합하고 학위제도를 개혁하여 폴리테크닉 학위라는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를 신설했으며, 교수의 수준을 높이고 교수 방법을 개선하였다.(Välilmaa & Neuvonen-Rauhala, 2004)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로그램을 마치면 쉽게 취직까지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KY 프로그램 역시 지역 및 지역 산업과 밀착된 산학협력 모형을 보여준다. KY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에서 지역의 산업체가 특별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지역의 산업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교육자들에게 교육요구사항을 요청한다. 요청이 이루어지면, 교육자들과 기업체 대표들이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하고, 기업체에서는 학습장소로 사용될 노동현장과 현장학습을 지도할 감독관을 선정해준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새로운 교육 형태는 성인학습자에게 공교육권에서의 학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되는 동시에 실무능력에 대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으로 다가갈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성인계속교육 중심의 비대학 고등교육 체제를 통해 이들 국가들의 공교육 체제는 체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강력하고 견고하게 구축되어가고 있다.

학생들의 특성을 보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습자들은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교육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개개인별로 다른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대학교에 입학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자의 다양한 배경과 목적에 따라 학습 진도와 학습방식뿐 아니라 진로도 달라진다. 교육에 있어서 막다른 길이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는 문화 덕에 성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계속학습을 위해 다시 대학교로 돌아오려고 한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성인의 대학 입학비율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전체 대학 재학생 중 25세 이상이 22% 이상이고, 30%가 결혼한 학생들이라고 보고된다¹⁷⁾.

이들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성인이 대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학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성인들이 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학입학자격에 25세 이상이면서 4년 이상의 직업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있으며, 덴마크는 대학교 내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들어와서 학습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페셔널 트랙을 구비하고 있다.

또 하나의 방식은 기존의 대학교 내에서 성인을 위한 개방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대학교는 개방 대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방 대학은 단순히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사 및 석사 학위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다.

17) 출처: 현지 Tampere 대학 프리젠테이션 자료

3. 노동시장교육: 교육-고용-복지의 삼각체제

성인들은 직업과 직장 전환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부담이 적을 경우 보다 공격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도전감과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복지체제가 구축된 북유럽 성인들은 실업 후의 적극적인 노동시장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도전적으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학습을 통해 직업지위를 상향조정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방식, 재정지원, 학습휴가 등의 각종 장치들을 통해 성인들이 직업훈련이나 성인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60년대 말부터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 개념 하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직장과 교육장을 번갈아 넘나들 수 있는 평생 순환교육 형태를 조직해왔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제도를 누구에게나 보장하기 위해 공공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되고, 교육목적을 위한 휴직은 기간에 제한 없이 우선적으로 신청·허가되며, 휴직기간 중 직장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교육이 끝나는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Sohlman, 1998)¹⁸. 이 과정에서 특히 1980년대 평생학습이 노동자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노동조건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학습기회, 학습휴가, 학습비지원 등 평생학습과 관련된 패키지들이 노동조합 총연맹(LO)의 정책적 강령으로 주장되었다. 이에 1974년 학습휴가권법령(Employee's Right to Educational Leave Act (SFS 1974: 981))이 제정되어, 1975년 이래로 모든 노동자들은 법에 근거하여 학습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다.

북유럽 3국은 모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으로 불리는 교육, 고용, 복지를 연계하는 모형은 1994년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이후에 등장한 것이다. 이때부터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은 덴마크는 이후 대타협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관대한 실업 급여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채택한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는 덴마크 노동시장교육(AMU, labour market training system)의 변화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MU는 초창기 농업중심과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가 1960년대 이후 산업중심과정으로 많이 전향되었으며, 1970-80년대 덴마크의 실업률이 높아지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AMU 과정을 증설하게 된다. 1990년대에

18) 이를 위한 구체적 시책은 다음과 같다.

- 공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은 무상이다.
- 교육목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휴직 기간 중 직장이 보장되어 교육을 마친 후 즉시 복직할 수 있다.
- 교육기간 중 국가로부터 대여 장학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다.

들어 노동시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등의 필요가 증가하면서, AMU에서는 지역사회의 기업과 훈련기관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사회에서의 필요도가 높은 훈련과정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덴마크에서는 2000년 VEU 개혁 이후, 성인직업훈련을 통해 교육 수준이 낮은 성인들에게 숙련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과정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¹⁹⁾

스웨덴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정책은 성인 훈련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적으로 국가(the Swedish National Labour Market Administration)에서 성인훈련 자금을 지원하며, 학습자는 국가의 노동 위원회에 의해서 훈련과정에 배치된다.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정부의 목적은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원활하게 기능하는 노동 시장을 만드는데 있다. 이를 위해 1) 구직자와 구인 자리의 효과적인 연결, 2) 구직자를 위한 능력과 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 3)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 도모, 4) 사람들의 참여감 도모, 5) 성별 간 평등 보장, 6) 유연하고 안전한 노동 생활 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훈련 외에도 직업훈련을 위해 스웨덴에서는 성인교육의 도약(The Adult Education Initiative, AEI), 고급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Advanc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Y), 개인 역량 계좌제 등, 덴마크에서는 순환교육을 위한 10개 프로그램, 성인교육 및 직업계속훈련 개혁인 VEU 개혁 등, 핀란드에서는 폴리테크닉, 중고령근로자능력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관련 정책들이 수립되어 실행되어 왔다.

4. 노르딕 평생학습의 배아(胚芽)로서의 “민중교육”

북유럽 국가들의 공교육체제를 포함한 교육은 근본적으로 민중교육이라는 씨앗을 발현해 성장하고 진화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⁰⁾. 북유럽에서 민중교육이라는 개념과 실천은 역사적으로 덴마크에서 스웨덴으로, 그리고 점차 핀란드로 전파되어 나간다. 민중교육에 해당하는 덴마크어는 fri folkeoplysning이며, 여기에서 fri는 시험이나 학력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oplysning은 enlightenment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²¹⁾.

19) 출처: 현지 AMS 프리젠테이션 자료

20) 이것은 마치 1600년대부터 1800년대 사이에 영국에서 popular education이 대중을 위한 공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들 국가에서도 민중교육은 대중에 대한 보편교육체제를 국가가 갖추기 훨씬 이전부터 이들을 위한 일반교육체제로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 스웨덴어에서의 민중교육은 folksbildning인데, 여기에서 bildning은 독일어의 bildung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cultivat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는 스웨덴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스웨덴

이러한 민중교육의 전통은 북유럽의 정치와 사회, 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중운동과의 깊은 관련성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이들의 역사 안에는 마을자치와 자율의 전통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중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봉건제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덴마크 농민들은 절대노예 혹은 농노로 전락한 경험이 없다. 1200년대 덴마크 주민들의 대부분은 주로 자영농민들이었는데, 당시 귀족이나 중산층에게 우월성을 주장할만한 집단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733년 농노예속법이 공포되면서 모든 농민들은 그들이 태어난 영지에 귀속되며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도록 되었지만 이것도 프랑스혁명 직전인 1788년 폐지되었고, 농민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덴마크는 사회민주화 및 민족주의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룬트비히를 통해 널리 알려진 포크하이스쿨은 덴마크의 민주화 역사와 맞물려 나가게 된다. 1814년 야간학교(evening school)가 시작되었는데, 일종의 노동교육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면서 주로 8시간 공장노동을 마친 노동자들에게 초급교육(당시 4년) 이후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한편, 1844년에는 최초로 기숙형 학교인 포크하이스쿨(folk high school)이 문을 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비형식교육기관들은 덴마크 교육의 비형식적 측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즉, 학력인증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기관, 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 시스템 등이 직업교육, 야간학습, 성인교육 등 다양한 장면에서 발견된다. 다시 말해서 덴마크 교육을 이끈 교육형태들은 결코 국가의 공교육체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자치에 기반한 비형식 교육기관들 및 자기학습의 전통들이 교육의 기반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덴마크의 민중교육이 주로 국민주의의 발현으로서 문화와 이념에 대한 학습에 치중하는 것이었다면, 스웨덴의 경우 그것은 오히려 매우 실용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체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 근저에 강력한 사회운동의 일상화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결국 민중교육적 전통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스웨덴의 민중교육적 전통은 노동자 운동과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기학습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00년대 말 스웨덴은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루터교의 영향으로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초등학교가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스웨덴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매우 달랐다. 스웨덴에 1870-90 산업혁명이 도입되었을 때 노동자들은 대부분 문해자였다. 1880-1910년 사이 스웨덴은 민주주의적 토대를 구축하였고,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민중운동에 터해 시작된 것이었다. 절제운동(temperance movement), 노동운동(labor movement), 자유교회운동(free church movement) 등이 서로 얽혀 새로운 사회 구조를 직조해내고 있었다. 당시 이러한 운동들은

어를 사용하였고, 따라서 스웨덴식 민중교육의 흐름이 상당 부분 이식되어 있다.

포크하이스쿨이나 스터디 서클 운동 등의 자기학습(self-education)과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1930년부터 1976년까지 사민당이 지속적으로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민중운동이 그 근거를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스웨덴 공교육의 발전과 성인학습체제의 발전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가 동일하게 민중교육의 이념 및 그것을 실천하는 다양한 비형식 비정부 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웨덴 시민사회교육(포크하이스쿨 및 스터디서클)에 정부지원이 시작된 것은 1947년으로서 이것은 초등교육이 9년으로 의무교육화 되기 훨씬 이전이었다²²⁾. 다시 말해서 노르딕 국가들의 교육체제는 학교교육체제와 거의 동시에 민중교육이 시작되었으며, 후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주민자치를 통하여 성장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학습문화 및 평생학습체제의 기초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학교체제와 연계된 성인계속교육의 특징

1. 초기학교교육과 성인계속교육의 구조적 연계

북유럽의 교육은 비교적 학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발달해왔다. 취업을 위해 학력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 특수성과 함께 역사적으로 강력한 주민자치 및 사민주의적 평등화 사상은 '학력을 부여하는 교육'과 '학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의 차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처럼 '학력이 부여되는 학교'와 '학력과 상관없는 성인계속교육'이 구조적으로 이분화 되지 않는 교육체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기학교교육과 성인계속교육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성인 비형식 직업교육과정은 학교교육체제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체계화 및 구조화되어 있다. 북유럽에서는 성인 비형식 직업교육과정에서의 학습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경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교육체제와 교환 가능한 형태의 학점 및 자격 제도로 전환시켜가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1989년부터 이미 성인교육영역과 일반학제간의 교육수준을 평행하게 만드는 개혁을 실행하였으며, 직업교육에서 얻은 자격증으로도 고등교육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22) 이것은 마치 1600년대부터 1800년대 사이에 영국에서 popular education이 대중을 위한 공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들 국가에서도 민중교육은 대중에 대한 보편교육체제를 국가가 갖추기 훨씬 이전부터 이들을 위한 일반교육체제로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코문성인고등학교 예산의 경우 지자체의 학교일반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되지 않는다. 또한 학력을 부여하지 않는 포크하이스쿨 출신자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입수능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들이 그 검정을 통하여 선발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로 비유해보자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입학에 대한 정원할당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핀란드는 폴리테크닉 개혁을 통해 중등 후 교육수준의 직업교육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하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면서 대학학위에 준하는 폴리테크닉 학위를 마련했다. 이 학위를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 상당한 학점을 인정받고 편입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는 폴리테크닉 대학원으로 곧장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원 과정도 마련해놓고 있다.²³⁾

2. 국가기간학제 내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북유럽은 학교체제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3국 모두 학교 교육과정의 평생학습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습을 강제로 종결지어야 하는 막다른 길('dead-end')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령기 학생이 곧장 상위 학교로 진학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다리역할을 하는 경로를 통해 얼마든지 상위학교로 진학이 가능하고, 평생 동안 계속되는 학습의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기본 학제 안에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과목 성적에서 '낙제(fail)'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통과 못함(not passe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일정 수준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여건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통과(passed)'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학업 성적이 뒤떨어지는 아이들도 결코 자신을 낙오자나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속도만 조금 늦을 뿐 언제든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지 못함으로써 대학입학이 불가능할 경우 스웨덴 아이들은 다양한 방법의 만회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포크하이스쿨이나 지역의 성인고등학교(KomVux)에서 고등학교 과목을 재수강하거나 다른 대체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이전 성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로 말하면 검정고시 겸 수능의 역할을 하는 대학입학수능시험이 있고, 직장에 4년 이상 다닌 경험이 있는 25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특별전형도 있다.

23) 출처: 핀란드 교육부 폴리테크닉 담당자 프리젠테이션 자료

V. 평생학습체제 정책관리의 특징

1.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장기적 통합개혁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스웨덴의 살쥬바덴 협약²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개혁 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최우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세부 과제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 흐름 속에서는 비록 내각이 바뀌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거시적으로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혁이 지속된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청이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는 거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자적인 행보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가 정책수립과 집행의 패키지로서의 일관성과 장기 개혁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점은 지난 20년간 덴마크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개혁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의 “초·중등학교(Folkeskole) 개혁”과 동시에 일반 고등학교 교육(Gymnasium) 개혁이 있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후기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및 훈련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고등교육개혁(Higher Education Reform)이라는 대학행정의 주요한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에는 다시 직업교육분야에 대한 개혁(VET 개혁)이 단행되었고, 2001년에는 성인교육 영역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개혁(VEU 개혁)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2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보다 나은 교육(Better Education)”이라는 새로운 교육개혁이 제시되었다. 이렇듯 덴마크는 초·중등학교부터 고등교육, 성인교육까지 순차적인 개혁을 통해서 통일성 있고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가고 있다.

한편, 세 나라 모두 하나의 개혁 패키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5년에서 10년에 걸친 단계적 개혁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예컨대 스웨덴은 1962-1977년 사이 하나의 통일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였고, 다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 개혁 드라이브 안에는 각 부문별 평생학습체제의 단위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호응되도록 기획되어 있다. 덴마크는 1985년 “10포인트 프로그램”을 설계도로 하여 초등교육

24) 살쥬바덴 협약이란 1938년 스웨덴의 생산직노조전국중앙조직(LO)과 사용자연합(SAF)이 체결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기본적으로 노조 측에는 산업평화를 유지할 기본책무를 부여하고, 사용자 측에는 노조활동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증대를 통한 대기업 육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노조 측에 생산수단 국유화 포기 등의 양보 등을 요구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복지를 확충해 준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살쥬바덴 협약은 중앙조직사이에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

개혁에서 시작하여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개혁에까지 평생학습체제의 한 사이클을 모두 개혁하였는데, 2002년의 ‘보다 나은 교육(Better Education)’ 개혁은 완결된 총체적 개혁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교육연구발전계획이라고 이름 붙여진 개혁 드라이브가 매년 5개년 단위로 계획·집행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유아·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 직업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평생학습체제가 일관성 있게 포함되어 있다.

2. 평생학습-노동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주무부서

3국은 모두 어떠한 전략으로든지 국가의 평생학습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평생학습이 사회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행정부서의 구조조정과 신설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련 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노동부가 직업훈련체제를 관할하고 교육부가 나머지 대부분의 성인교육을 담당해오다가 2001년에는 성인직업훈련체제에 대한 업무도 교육부로 이관시킨다. 이 때 노동부에서 노동시장교육을 담당하던 부서 전체를 그대로 교육부로 옮겨오으로써 노하우와 전문성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시장정책 위주의 직업훈련행정과 교육관점의 성인교육행정이라는 이원지배구조를 통합하여 노동과 교육을 보다 일관되고 통합된 관점에서 연계하는 교육행정구조를 살리고자 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약 350명의 전문가가 있는 교육부 산하 기구인 “국가 교육위원회(National Board of Education)”는 자격관리, 프로그램 개발, 교육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가 교육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유년학교(pre-school), 학교, 방과 후 교육 간의 통합을 위해서 1998년, 유년학교와 방과 후 학교에 관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시켰다.

IV. 결론 및 제언

지식경제의 등장과 노동시장의 지구화는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노동력 공급패턴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러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 이민자 실업, 노년층과 여성의 실업은 장기화 및 구조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일견에서는 그것을 노동시장정책의 실패로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제 이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직접훈련의 차원을 넘어선 평생학습의 거시적 지원체제와 결합할 때에만

이러한 구조적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고립된 교육공간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이라는 개념 하에 일상적인 삶과 학습을 구조적이면서도 전방위적으로 연계시키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회를 재구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고민에 북유럽 국가들의 평생학습체제는 다양한 정책적 상상력 및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가장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시사점은 평생학습체제가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노동시장 및 시민주의적 복지국가체제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학교교육체제, 노동시장교육체제, 그리고 시민사회교육체제를 포용하는 통합체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유럽의 포괄적인 평생학습체제의 구조적인 틀은 국가-시민-노동시장의 결속과 연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3자 간의 조합주의적 연대에 의해 시민의 자발적 학습문화를 생성하면서, 노동 및 고용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실행하고, 교육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성인교육부문과 관련하여 1) 적극적 노동시장교육정책, 2)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자유교양교육, 3) 공교육의 일부로서의 성인학습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생산정책과 사회주의적 분배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국가가 분배의 부담을 덜고 막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높이고 그들에 대한 완전고용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스웨덴의 렌-메이드네르 정책의 기초가 바로 이것을 지향한 것이었다. 노르딕 모형으로 이름 붙여진 성인교육 및 노동시장교육 모형은 이러한 '공격적인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드라이브된 것으로서 시장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성인 실업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실업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산업계에서의 부족한 기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의 역량과 자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자유교양교육의 역할을 볼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성인학습참여율의 근거에는 활발한 시민사회활동 및 자발적 조직 활동에 기초한 왕성한 학습활동이 내재해 있다. 중등 이후의 교육에 대해 스스로 학습기반을 확보해 온 노동계급은 이후 그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중심 정치사회화에 성공하였고, 현대에 들어서서도 이들의 학습조직화는 사민당 중심의 이념과 정책이 나름대로의 주도성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해갈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해 왔다. 현재 상당 부분 관료화되기는 했지만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사회운동의 기류는 학습과 참여의 문화를 일상화하고, 그로 인하여 다시 사회운동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환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성인학습이 공교육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유럽은 예외 없이 교육을 공적 영역이 담당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사회분배와 평등, 그리고 민주화의 차원에서 교육문제에 접근한다. 이들 나라에서 교육은 공공영역이 담당해야 할 과제이며 성인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성인교육에 제공되는 지원금의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인교육은 공공교육체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당연히 이에 대한 국가의 공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성인학습 부문에서의 노동시장, 시민사회, 정부의 협력체제 및 역할분담은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수준으로 내려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각 교육수준에서 요구되는 방식에 맞게 조정되어 적용된다. 그리고 그 장이 바뀔 때마다 협력체제는 노-사-정, 산-학-관 등의 다양한 연계체제로 바뀌어간다. 협력관계를 맺으면 이들 3자는 공동의 책임 하에 각각의 정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현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상호 배타적이거나 고립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겹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방해 나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전체적인 학습수요와 학습의 질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상 본 논의에서는 북유럽의 평생학습체제를 3국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유럽 사례가 갖는 시사점은 평생학습체제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교육체제 외에 별도의 것을 구축해야 한다기보다는 현 교육체제를 ‘평생학습’이라는 개념 하에 그 기본원리, 작동방식, 그리고 관련 체제 간의 연계 형태 등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북유럽의 경우 전통적으로 구축되어온 개념 혹은 용어 이전의 평생학습체제를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에는 역으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교육체제 안에 심는 일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유럽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격적인 방법과 전략을 얻는 작업은 향후 다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상을 읽어내는 일도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북유럽 모형은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는 역동적인 생물체이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의 평생학습체제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식을 바꾸고, 정책을 조정하며, 실행전략과 전술을 개편해가는 여정 중에 있다. 특히 북유럽 모형은 1990년대 이후의 유럽 경제 위기 상황 및 그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EU 통합정책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핀란드는 10퍼센트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잡기 위해 거의 모든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정의 실현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장 신속하고도 명료하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수용한 경우로 평가받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그에 비하여 정도는 덜한 편이지만 최근 들어 뚜렷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해가

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스웨덴의 경우 지난 2006년 9월 17일 총선에서 중도우파 연합이 승리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이 어떻게 설정되고 실행될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 잠재되어 있는 환경적 요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과 조율하면서 평생학습체제를 수정·보완해 가는지 지속적으로 그 상응관계를 읽어내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02).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OECD 교육지표. 통계자료 SM 2004-5
- 코모토 요시코(2002). 임선애역. 스웨덴 쑥쑥 교육: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 스웨덴교육현장 체험기. 서울: 홍익출판사.
- 한승희 등(2005). 북유럽 평생학습정책 추진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평생학습추진 전략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승희(2006).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Abrahamsson, K. (1996). Concepts, organization and current trends of lifelong education in sweden. In R. Edwards, A. Hanson & P. Raggat (Eds.), *Boundaries of adult learning*. London: The Open University Press. 169-170.
- Adult education council(2002). *New lines and dimensions for the adult education policy of finland*. Adult education council, Ministry of Education, Finland.
- Aegidius, K. K.(2004). 덴마크 평생교육정책의 철학과 방향. 광명시평생학습원. 평생학습사회, 선언에서 실현으로. 제3회 평생교육 국제심포지엄
- Albrecht, J. (2005). *The Knowledge Lift: The Swedish Adult Education Program That Aimed to Eliminate Low Worker Skill Levels*, Inst. For the Study of Labor, Discussion Paper No. 1503.
- Alheit, P., Becker-Schmidt, R., Gitz-Johansen, T., Ploug, L., Olesen, H. S., & Rubenson, K. (2004). *Shaping an Emerging Reality: Researching Lifelong Learning*. Roskilde: Roskilde University Press.
- Belanger, P. & Tuijnman, A. (eds.) (1997). *New patterns of adult learning: A six-country comparative Study*, UNESCO IEE &Pergamon.
- Bjorklund, A. et al. (2004) *Education, equality, and efficiency: An analysis of Swedish school reforms during the 1990s*, IFAU.
- CEDEFOP (2001a) *Lifelong learning in Denmark*, Panoarama Series,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EDEFOP (2001b) *Lifelong learning in Finland*, Panoarama Series,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EDEFOP (2001c) *Lifelong learning in Sweden*, Panorama Series,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offield, F. (1999). Breaking the consensus: Lifelong learning as social control, Peter Alheit, Johannes Beck, Eva Kammler, Richard Taylor, Henning Salling Olesen (eds.) *Lifelong learning inside and outside schools*, Roskilde University, Universitat Bremen, and Leeds University.
- Field, J. (2005). *Social Capital And Lifelong Learning*. The Policy Press.
- Huhtala, Hyppönen, Koukku, Nordström. (2004). *Competence-based vocational qualifications in the education system of Finland*. (<http://www.oph.fi>)
- Joergen Brems(2003). *Portrait Adult Education Denmark*. Deutsches Institut für Erwachsenenbildung.
- Jussi Välimaa & Marja-Liisa Neuvonen-Rauhala(2004). POLYTECHNICS IN FINNISH HIGHER EDUCATION. Presentation in the Confer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on-university sector in eight European countries', October 22-23, 2004, Polytechnic Institute of Leiria.
- Jussi Välimaa & Marja-Liisa Neuvonen-Rauhala(2004). POLYTECHNICS IN FINNISH HIGHER EDUCATION. Presentation in the Confer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on-university sector in eight European countries', October 22-23, 2004, Polytechnic Institute of Leiria.
- Katarina Richardson & Gerard J. van den Berg (2001). The effect of vocational employment training on the individual transition rate from unemployment to work.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8* (2001) 175-213
- Katarina Richardson and Gerard J. van den Berg (2001). The effect of vocational employment training on the individual transition rate from unemployment to work.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8* (2001) 175-213.
- Larsson, S. (2001) Seven aspects of democracy as related to study circles, *IJLE*, 20(3)
- Larsson, S. (2001) *Seven aspects of democracy as related to study circles*, *IJLE*, 20(3)
- Lindgren, A. (2002). Lifelong learning in a changing world[Swedish case]. In K. Harney, A. Heikkinen, S. Rahn & M. Schemmann (Eds.), *Lifelong learning: One focus, different systems*. Frankfurt: Peter Lang. 54
- Longworth, N. & Davies, K. (1997). *Lifelong learning: New vision, new implications, new roles for people, organizations, nations and communities in the 21st century*. London: Kogan

page.

- Lund, R. (ed.)(1949) *Scandinavian Adult Education: Denmark, Finland, Norway, Sweden*, Stockholm: Kooperativa Forbundets Bokforlag.
- Makela, E. & Hulkko, J. (1999). 'Access to vocational guidance in Finland.' cited in: Clayton, P. M. (Ed) (1999). *Access to Vocational Guidance for People at Risk of Social Exclusion* [online]. Available: <http://www.adultedu.gla.ac.uk/pamela/vocation.rtf>
- Ministry of Finance Economics Department(2005). ECONOMIC BULLETIN. May 27, 2005/2. Finland.
- MISEP (2002). *Basic Information Report*. SWEDEN. MISEP.
- MOE (2005). *Facts and Figures 2005*. The Ministry of Education, Denmark.
- Nyysölä, K., & Hämäläinen, K. (2001). *Lifelong learning in finland: The extent to whic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is nurturing lifelong learning in finland*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OECD (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OECD
- OECD (2001a). *Thematic review on adult learning : Finland country note*, Paris: OECD
- OECD (2001b). *Thematic review on adult learning : Sweden country note*, Paris: OECD
- OECD (2002). *Polytechnic Education in Finland. Background Report*. Ministry of Education.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cience Policy. Publication Series 93. Helsinki.
- OECD (2003a). *Beyond Rhetoric: Adult learning Policies and Practices*, Paris: OECD
- OECD (2003b). *OECD National Education Policy Reviews: Pilot review of the quality and equity of schooling outcomes in Danish basic education*, EDU/EC(2004)3/REV1
- OECD (2003c). *Reviews of national policies for education - polytechnic education in finland*, Paris: OECD
- OECD (2004a) *Special Session of the Education Committee: Pilot review of the quality and equity of schooling outcomes in Danish basic education_ Examiner's Report*, EDU/EC(2004)4.
- OECD (2004b). *Lifelong Learning: The Danish Qualification System: background Report to the OECD*, Paris: OECD
- OECD (2005).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 Sapir, André. (2005). 'Globalization and the Reform of European Social Model'. Bruegel(www.bruegel.org).
- Simon, E. (1989) *The Philosophical History of the Nordic Folkhighschool*, website data

Sohlman, A. (1998) *The culture of adult learning in Sweden*. The commission for adult learning.
Søren Ehlers(2005). "The Construction of a Danish Strategy for lifelong learning" 미발행원고.
Swedish Institute (2005) Swedish Labor Market Policy, Fact Sheet http://www.sweden.se/fact_sheets.

The Danish Bologna follow up group's QF working party(2003). *Towards a Danish "Qualifications Framework for higher education*

Toiviainen, T. & Larjanko., J. (1997). *Adult education in finland: The roots, the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perspectives*. Retrieved 0609, 2005, from <http://www.kaapeli.fi/~vsy/alice/cou/fin.html>

Tosse, S. et al (eds.) (2000) *Reforms and policy: Adult education research in Nordic countries*, Trondheim, Norway: Tapir Academic Press.

Tuijnman, A. & Schuller, T. (eds.)(1999). *Lifelong learning policy and research: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London: Portland Press.

인터넷 사이트

덴마크 교육부 <http://www.uvm.dk/>

스웨덴 교육부 <http://www.eng.hsv.se/>

유럽 교육정보 네트워크(Eurydice) <http://www.eurydice.org/>

유럽 성인교육연합 <http://www.eaea.org>

핀란드 교육부 <http://www.minedu.fi/minedu/education/index.html>

핀란드 통계청 <http://www.stat.fi>

* 논문접수 2006년 11월 12일 / 1차 심사 2006년 11월 26일 / 2차 심사 2006년 12월 5일

* 한승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의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주임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민중교육의 형성과 전개』(2001), 『평생학습과 학습생태계』(2001) 『평생교육론』(2005), 『포스트모던시대의 평생교육학』(2005) 등이 있다.

* e-mail: learn@snu.ac.kr

* 김경애: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쳐 현재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Samsung Equal Opportunity Scholarship Foundation)에서 기획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 e-mail: celestar@empal.com

* 이정은(李廷恩, Jung Eun Lee): 한양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중에 있다.

* e-mail: je0207@snu.ac.kr

Abstract

Lifelong Learning System in Scandinavian Countries: The Old Future

Soonghee Han* · Kyung-ae Kim** · Jung Eun Lee*

Scandinavian countries have been building educational systems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olicies even before the word of 'lifelong learning' is used.

Scandinavian lifelong learning can be characterized by three main aspects. First, in Scandinavian countries, labour workers insisted on having opportunities to learn as their right. Also they have learning culture from the tradition, in which lifelong learning is embedded. Second, Scandinavian educational systems have provided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at every stages.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draw attention to life skill/key competencies and self-directed learning as the foundation for lifelong learning. At higher education, various non-university higher education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to give adults learning opportunities. Public school education and adult continuing education are structurally linked. Third, progressive labor market education is developed with triangle system- connection of education, labor market, and welfare.

The public and adult education systems in Scandinavian countrie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long-established tradition of nonformal popular education, and the ministries of education are leading long-term and integrated reforms. Lifelong learning system in Scandinavian model directs social democratic welfare systems and labor market systems for full employment. Finally, lifelong learning system as an umbrella system includes school education, labor market education, and civil education systems. And these systems are organically and structurally linkaged.

Key words: lifelo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policy, education system, nordic countries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